

명불허전

‘대통령상’ 명창들 판소리 한마당... 17일 문예회관

판소리는 순조 시대 8명창, 고종 시대 5명창에 의해 여러 바디(명창이 스승으로부터 전승하여 한 마당 전부를 음악적으로 다듬어 놓은 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임방울국악제 등 전국 유수의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판소리 유품을 선보인다.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지부장 주소연·사진)가 주최하는 제6회 판소리 유품 발표회가 17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박정아(보성소리축제 대통령상) 명창의 박초월 바디 ‘수궁가’ 중 ‘계변양류’, 김명남(임방울국악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명창의 김세종 바디 ‘춘향가’ 중 ‘항단이 등장’, 윤종호(보성 소리축제 대통령상) 명창의 정응민 바디 ‘심청가’ 중 ‘행선 전야’를 만날 수 있다. 또 전희심(목포 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명창의 강도근 바디 ‘홍보가’ 중 ‘박타는 장판’



주소연(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명창의 박봉술 바디 ‘적벽가’ 중 ‘새타령’, 전임삼(전주대사습 대통령상·전남대학교수) 명창의 박봉술 바디 ‘춘향가’ 중 ‘동헌전차’가 공연된다.

그밖에 박성호씨의 선비춤, 전남대 판소리 합창단의 ‘남도잡가’, ‘화초 사거리’ 무대가 마련된다. 고수는 김동현·박시양·임영일·권혁대씨. 문의 062-232-1359. /김미은기자 mekim@

불후의 명곡 스타 광주 콘서트



24일 DJ센터...에일리·알리·박재범·딕펍스 등 출연

KBS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명곡을 새로운 가수들이 재해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불후의 명곡’을 통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다섯 뮤지션이 합동 공연 ‘콘서트 불후의 명곡’을 진행한다. 오는 24일(오후 4시·7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날 공연의 주인공은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에일리와 ‘불후의 명

곡’ 안방마님으로 불리며 인상적인 무대를 여러 차례 선보인 알리, 강한 랩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박재범이다. 또 뮤지컬 처럼 한편의 짜여진 음악을 선보이는 ‘슈퍼스타K’ 우승자 울랄라세션과 유쾌한 무대를 선보이는 그룹 ‘딕펍스’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에서는 각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정한 ‘불후의 명곡’ 최고의 곡들을 선보인다. 티켓 가격 7만7000원~9만9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 새 이사장 23일 선출

“거물급 인사 유력”...이사진 21명서 15명으로 축소·물갈이도

공석인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이사장이 다음주 중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신임 이사장 선출과 함께 기존 이사진을 대폭 물갈이하고 규모도 축소할 예정이다.

15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3일 광주비엔날레 회의실에서 ‘제137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 1명, 이사 2명, 감사 1명 등 모두 4명을 새로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5년 광주비엔날레 예산안’,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 광주비엔날레 개최결과’ ‘광주비엔날레 제20주년 특별프로젝트 개최결과’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정동채 대표이사는 “신임 이사장 후보는 정부는 물론 국내·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무거운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모두 6명의 이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이사진이 21명(당연직 5명, 선출직 16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6명(당연직 5명)의 이사에게만 광주비엔날레 신임 이사장 결정 권한을 준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로 성립하고 출석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정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 정관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이사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단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임 이사장은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1월 중 마무리되면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토대로 새로운 이사 후보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임 이사장 선임과 함께 재단 이사진에 대한 물갈이 작업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진에 대한 문제는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용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광주비엔날레 창조적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광주비엔날레는 이사회 인원이 과다하고, 당연직이나 명망가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실질적 기능을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임명된 이사들은 재원조성이나 국제적 네트워크 확산 등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와 구성이나 운영 효율화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단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이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이사진의 규모는 기존 21명에서 15명 내외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17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청춘, 푸르른 날들에 고함

광주국악방송 18일 공개방송... ‘국민애청 우리음악’ 특집

광주국악방송(FM 99.3Mhz)이 18일 오후 4시 전남대 예술대학 지음홀에서 특집 공개방송 ‘청춘, 푸르른 날들에 고함’을 진행한다.

이날 공개방송은 광주국악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빛고을 상사디야’의 청취자 참여코너 ‘국민애청 우리음악’ 특집으로 꾸며진다.

1부에서는 문화예술인 4명을 초대해 방청객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독일어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12천 가야금과 25천가야금을 들고 독일로 떠난 가야금 연주자 조환희씨, 16년째

매년 발표회를 갖고 있는 가야금병창 연주자 하선영씨, 은퇴 후 영화감독의 삶을 살고 있는 전양수씨, 문화기획자 이정현씨 등이 출연한다.

2부에서는 이야기꾼으로 나섰던 조환희씨와 하선영씨의 공연, 젊은 국악 그룹 ‘불세출’과 ‘절대가인’의 특별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날 공연은 무료로 국악방송 홈페이지(www.gugakfm.co.kr) ‘빛고을 상사디야’ 공개방송 소개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2-93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롯데갤러리 31일까지 김희상전

가식 없이 파안대소하는 사람, 깊은 열려 애써 있는 시무룩한 얼굴, 일상의 재질거림을 재현한 듯한 몇몇 무리의 담소, 순간의 사색에 잠겨있는 이, 어떠한 일에 성노하거나 생의 무게에 짓눌려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군중 등.

광주 롯데갤러리는 오는 31일까지 조각가 김희상씨를 초대해 ‘사람꽃-희로애락(喜怒哀樂)’전을 연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낸 작품 60여점과 도자기법으로 제작한 판각도 판 부조작품 등을 선보인다.

작가는 우리 주변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등을 인물상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투영했다.

인물상은 각기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다가도 작품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답답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김씨가 작품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울림’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도상의 수인(手印)을 닮은 손, 본존(本尊)의 온화함과 같이 푸근한 미소를 건네고 있는 인물의 모습 등은 본디 우리 모두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한다. 문의 062-221-18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시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시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알림 35 시·군 취급점 선착순 모집

☎ 010-3601-7701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불백 (6,000원)

625년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 매출

신규창업, 임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없주는 적은아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출브랜드로 손님들께 특별한 반응을 얻고있습니다.